

‘서울 킬러’ 광주FC, 서울전 5연승 거두고 사우디행

K리그1 9라운드 2-1 승…헤이스·박태준 골에 김정민 슈퍼세이프 활약
26일 ‘스타 군단’ 알 힐랄과 ACLE 8강 격돌…브루노·안영규 부상 변수

광주가 서울전 5연승을 이루고 기분 좋게 사우디 행 비행기에 올랐다.
광주FC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헤이스와 박태준이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면서 포효했다.
광주는 이번 승리로 2023년 9월 17일 30라운드 1-0 경기 이후 서울전 5연승을 달렸다.
서울이 전반 3분 강주혁의 왼발 슈팅으로 공세를 알렸다. 10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김진수의 왼발 슈팅이 나왔다.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한숨 돌렸다.
전반 19분 광주에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브루노가 부상으로 주저앉자 이정호 감독이 빠르게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이정호 감독은 브루노를 대신해 안영규에게 역할을 맡겼고, 신인 강희수를 불러들이고 베테랑 최경욱을 투입했다.
전반 26분 박태준이 광주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38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김진호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다. 공은 골키퍼 강현무를 스쳐 지나갔고 다시 광주의 코너킥이 진행됐다.
이번에는 이강현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바운드 된 공은 골대 옆으로 흘렀다.

전반 41분 서울 조형욱의 헤더가 골대를 지나치면서 광주의 공격이 전개됐다. 그리고 헤이스의 골이 나왔다.
헤이스가 서울 진영에서 패스를 시도했지만 공이 상대 맞고 흘렀다. 다시 공을 잡은 헤이스는 이번에는 왼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을 뚫었다. 헤이스의 시즌 4호골.
전반 추가 시간, 서울 코너킥 상황에서 링가드가 띄운 공이 야잔의 헤더로 연결됐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전 서울의 공세에 시달렸다.
후반 7분 광주 수문장 김정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리고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이승모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정민이 다리로 공을 막아냈다.
이후에도 서울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광주 수비진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공을 쫓던 안영규가 야잔과 충돌했다. 브루노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했던 안영규도 결국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한길이가 투입됐다.
후반 18분 서울의 뜨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

는 골이 터졌다. 박태준이 주인공이었다.
오후성이 상대 진영을 휘저으면서 슈팅을 시도했다. 상대 맞은 공이 높게 뛴고, 박스에 있던 박태준이 가슴으로 공을 잡은 뒤 오른발로 공을 때렸다. 잠시 뒤 서울의 골망이 흔들리면서 점수는 2-0이 됐다.
서울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다.
후반 22분 문선민의 크로스에 이은 조영욱의 헤더가 나왔지만 광주 골대를 벗어났다.
서울 김기동 감독은 후반 32분 조영욱 대신 독스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서울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33분 야잔이 머리로 떨군 공을 독스가 슈팅으로 연결했다. 광주 수비 맞고 골절된 공을 골대 오른쪽에 있던 링가드가 잡았다. 링가드는 김정민을 제치고 오른발로 공을 찌어 차면서 골대를 갈랐다.
후반 36분은 서울 문선민의 매서운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가 안도했다.
그리고 후반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서울이 쉴 새 없이 광주 골대를 두드리면서 위기의 순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광주는 서울의 막판 공세를 모두 막고 2-1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세리머니를 한 광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2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광주는 오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알 힐랄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박태준이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1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8분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6경기 만에 그라운드 복귀’ 이강인, 73분 펄펄 날았다

패스 성공률 97%·평점 7.6
PSG, 르아브르에 2-1 승
이재성, 독일 개인 최다 7골 타이

지난달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발목을 다쳤던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24)이 부상을 털어내고 6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PSG는 20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지난 6일 정규리그 28라운드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짓는 PSG는 개막 29경기 연속 무패(24승 5무 5점 77)를 이어가며 ‘무패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
특히 PSG의 이강인은 지난 3월 20일 오만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 도중 왼쪽 발목을 다친 이후 한 달 만에 출전해 73분 동안 활약하며 부상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렸다.
이강인은 A매치 발목 부상의 여파로 공식전 5경기(정규리그 2경기·UCL 2경기·프랑스컵 1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6경기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중장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수확하지 못했지만, 3차례 키패스와 97%의 패스 성공률, 7차례 크로스를 기록하며 소파 스코어로부터 수비수 루카스 베랄두와 함께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7.6을 받았다.
전반 8분 만에 데지레 두에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5분 곤살루 하무스의 득점포가 터진 PSG는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르아브르의 이사 수마레에게 헤더골을 내주며 추격당했다.
PSG는 후반 28분 이강인을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를 투입하며 뒷문 단속에 들어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오른쪽)이 20일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고, 결국 1골 차 승리를 지켜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활약하는 ‘홍명보호 미드필더’ 이재성이 시즌 7호골을 터트렸지만, 팀의 무승부로 한껏 웃지 못했다.
마인츠는 19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바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 2024-2025 분데스리가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앞섰던 후반 44분 통한의 동점골을 내줘 2-2로 비겼다.
승점 1을 따낸 마인츠(승점 47)는 이날 승리를 거둔 프라이부르크(승점 48)에 5위를 내주고 6위

로 떨어졌다.
전반 3분 만에 볼프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아르놀트에게 선제골을 내준 마인츠는 전반 37분 이재성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페닐티아크 부근에서 넬스 바이퍼가 찔러준 패스를 잡은 이재성이 골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이재성은 약 2개월 만에 시즌 7호골을 기록, 2022-2023시즌 작성했던 자신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과 타이를 이뤘다. /연합뉴스

우상혁, 아시아선수권 대표선발전 출격

내일 구미서 첫 실외경기
아시아선수권 2연패 도전

우상혁(28·용인시청·사진)이 올 시즌 첫 번째 실외경기를 국내에서 치른다.
대한육상연맹은 21~23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최종 선발대회를 연다.
우상혁이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대회 둘째 날인 22일 오전 11시에 시작한다.
올해 우상혁은 2월 9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시즌 첫 점프를 해 2m31로 우승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에서도 2m28로 정상에 올랐다.
3월 21일 중국 난징에서 벌어진 2025 세계실내선수권에서도 2m31로 우승하며 올해 치른 3개 실내 국제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기본 좋게 실내 시즌을 마친 우상혁은 진천선수촌에서 실외 시즌 개막을 준비했다.
올해 우상혁은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한국 구미 아시아선수권, 일본 도쿄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정했다.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5월 27일 구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선수권에서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우상혁은 “고교 때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치른다”며 “국내 팬들 앞에서 뛰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마음도 쉴 새 없이 훈련하는 데에 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구미에서 우승해 아시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하면, 9월 도쿄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시아선수권 최종 선발대회에는 49개 종목에 약 400명이 출전한다.
개인 종목에서 우승하면 아시아선수권 대표 우선 선발 자격을 얻는다.



대한육상연맹은 대회 뒤 일주일 안에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해 구미 아시아선수권에 나설 대표 선수를 확정한다.
선발 대회에는 우상혁 외에도 한국 고교 남자 100m 최고 기록(10초30)을 작성하고서 올해 실업 무대에 뛰어난 나마디조엘진(예천군청),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동메달리스트 김태희(익산시청) 등 한국 육상 최고 선수들이 출전한다.
남자 포환던지기 박시훈(금교)과 여자 중장거리 송다원(영천성남여고), 남자 단거리 김동진(대구체고) 등 유망주들도 통합부 경기에 출전해 선발들과 대결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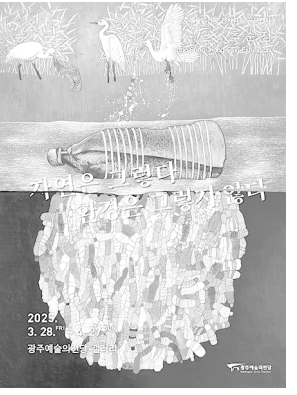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자연은 그렇다 환경은 그렇지 않다 : 추순정 개인전

일시 : 2025-3-28(금)~2025-4-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